

# 2020 고양 '첫' 인권작품공모전 자세히 보기

interview



##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조혜옥

안녕하세요?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조혜옥입니다. 공모전에 접수된 글과 포스터, 영상을 보며, 이제 인권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관통하는 가치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권침해 상황에 체험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당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들에 감동했습니다. 차별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을 보면서, 시민의 인권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많이 상상하고 요구합니다.

### 포스터 아동부문 최우수상 수상 정다빈

평소 요즘 10대가 타인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제가 2년 전 겪은 일이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감사히도 '최우수상'을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쓴 에세이 제목처럼 앞으로 마주보고 이해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 포스터 일반부문 최우수상 수상 직박구리 팀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잔 이상 차를 마시는 것처럼 인권 역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등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분 좋게 기념할 만한 일이 생겨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직장 내 인권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만나는 모두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 수상 내역(포스터 부문)

일반	최우수상	인권, 한잔하실래요	직박구리(팀)	아동·청소년	최우수상	편견의 안경	정다빈
	우수상	우리가 인정할 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입니다	강유석		우수상	평등한 세상으로 모두 함께 갑니다!	김도현
장려상	당신도 누군가에게 가해자인 않았나요 아직도 그때에 머물고 계신가요 피할 건 바이러스입니다	같은 인간	곽다연	장려상	차별은 돌아옵니다	김민준	
		당신도 누군가에게 가해자인 않았나요	신지원		나 하나로 시작되는 세상	양정현	
		아직도 그때에 머물고 계신가요	문성식				
		피할 건 바이러스입니다	신민철				

# 2020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 돋보기



## 일반부문 최우수작

- 직박구리팀

### [인권, 한잔하실래요?]

**작품설명** 인권의 본질인 존중과 평등을 커피 한잔에 빚대어 인권은 일상 속 가까이에 있음을 쉽게 표현했다.

**인권 한마디** 인권은 어렵고 나와는 먼 얘기로 생각하지만, 차한 잔처럼 우리의 삶에 녹아있고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작품



## 아동청소년부문 최우수작

- 정다빈

### [편견의 안경]

**작품설명** 여러 편견의 안경에 짓눌려 결국은 검은색이 되어 버린 인간을 표현했다.

**인권 한마디** 색안경을 오래 쓰고 있을수록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며, 편견이 거듭되면 원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작품



## 일반부문 우수작

- 강유석

### [차별과 차이]

**작품설명** 차별과 차이의 사전적 의미를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인 것을 설명했다.

**인권 한마디** 차별과 차이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우리가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나 성찰하게 해주는 작품



## 아동청소년부문 우수작

- 김도현

### [평등한 세상으로 모두 함께 갑니다!]

**작품설명** 인종, 종교, 나이, 성별, 빈부격차 등의 다른 차별 받을 이유가 아님을 희망찬 모습으로 표현했다.

**인권 한마디** 평등한 세상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임을 평등한 열차를 통해 보여주는 작품



## 일반부문 우수작

- 곽다연

### [같은 인간]

**작품설명**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고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인권침해 상황(전쟁, 폭행, 인종차별)과 이를 극복한 화합의 장으로 표현했다.

**인권 한마디**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세상 곳곳에 화합과 연대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잘 전달한 작품



## 아동청소년부문 우수작

- 김민준

### [차별은 돌아옵니다]

**작품설명** 차별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부메랑처럼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인권 한마디** 사람은 누구나 차별에 노출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차별을 하기도, 차별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부메랑으로 표현한 작품

\* 스토리 부문 수상작은 10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